



이자스론 천치아 아키텍츠 '우주여성들: 장소를 발치리'

■ 스페인 예술, 휴: 안방 (양림동 평면마을) 스페인 파빌리온은 다학제적 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집중적 표현 방식을 추구한다. '휴: 안방'은 전시장과 건축디자인 사이의 대화, 물질주의에 대한 접근을 통해 '광주'에서 회복의 공간을 탐색한다. 개인, 집단, 특정 유형의 관심을 묶어 정치성을 예술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이번 전시는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다. 관객에게 '관계적 공간'만을 창출해 감각적으로 의미를 형성한다. 양림동 평면마을 공예거리 22동, 매주 월요일 및 추석 당일 휴관.



사리 달레나 '에로스의 두번의 키스 2'

■ 필리핀 '자유정의 장소' 필리핀 파빌리온은 현대미술 작가 이드나나 아블라카, 사리 달레나, 토일 레오 이마오, 데니스 '시오' 몬테라, 폴 에릭 로카, 비제이 빌라프랑카, 큐레이터 아비엘라릭스 7인 공동작업이 전시된다. 전시는 세 가지 맥락으로 구성된다. 비엔날레의 전체적인 주제와 상용체 사람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저항의 구성이자 혁명의 정신적 지표인 광주를 기린다. 디지털로 동남아 국가들이 탈식민 현실과 맞닿아 있다. 작품은 집단적 혁명 정신의 시공간적 표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사적, 내적 비유를 넘나든다. ACC 복합전시관 5전, 매주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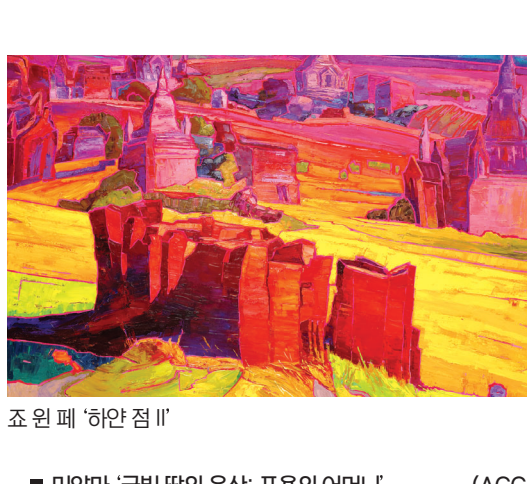
조인 패 '하얀 집 3'

■ 미얀마 '금빛 땅의 유산: 용의 어머니' (ACC) 미얀마는 13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민족 별로 고유 문화와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인 민족분쟁을 낳고 있다. 미얀마 현대미술은 이러한 독특한 자연적, 문화적 특색 외에도 사회적 통찰을 담고 있다. 미얀마 파빌리온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문화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한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기교 역할을 하는 미술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다. ACC 복합전시관 5전, 매주 월요일 휴관.



줄게리 자이스 '프로젝트: 임시 표지'

■ 말레이시아 '패시 패란 도시 공간의 임시 표지' (ACC) 말레이시아(국립미술관은 예술의 탈장소성을 모두 발휘를 확장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파빌리온은 예술적 우수성 외에도 미술과 문화 교류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대사관공공연의 수상자인 줄게리 자이스는 말레이시아의 예술적 재능을 상징하는 작가다. '프로젝트: 임시 표지'는 시공에서 보낸 작가의 어린시절을 반영한다. 장래의 미래를 재현한 파포만스 약 85명 참가자가 전시공간으로 휴를 이루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ACC 복합전시관, 매주 월요일 휴관.



조인 패 '하얀 집 3'

■ 미얀마 '금빛 땅의 유산: 용의 어머니' (ACC) 미얀마는 13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민족 별로 고유 문화와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인 민족분쟁을 낳고 있다. 미얀마 현대미술은 이러한 독특한 자연적, 문화적 특색 외에도 사회적 통찰을 담고 있다. 미얀마 파빌리온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문화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한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기교 역할을 하는 미술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다. ACC 복합전시관 5전, 매주 월요일 휴관.



지라나 무하마드 '움직이는 대지, 풀 건너기, 휴, 먹기'

■ 싱가포르 '바람을 허여 얼굴을 돌리고 태양의 움직임을 따르세요' (ACC) 우리는 어떻게 인간계 이외의 세계 및 여러 종의 종경과 하나 하나의 무리에서 건너기 움직이는 걸까? 아침에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그들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어떻게 그들은 환경의 변화성에 대해 높은 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구축한 환경에서 더 오랜 시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번 작품은 행위예술, 공연, 비디오에세이 시리즈 등으로 구성된다. 우주형상이며 풍수지리적인 지도를 통해 문헌하는 동선이 이색적이다. ACC 복합전시관 5전, 매주 월요일 휴관.



피크리안 남평동 '미지의 코드'

■ 태국 '알려지지 않은 멜로디의 작곡' (ACC) 알려지지 않은 멜로디의 작곡은 자연과 인공을 비례해 정치적인 문화지리학, 허구와 현실, 폭력과 사랑 등을 풍경과 결합해 재해석한다. 작곡이 시로부터, 피크리안 남평동, 메리 파키기는 소리에 수와 나, 실험, 그리고 세라파 반야의 작품들은 사회정치적 풍경에서 현실과 이념을 탐구한다. 섬유작가 작곡이 시로부터의 '10P'는 미얀마 몽족 이민자의 정취를 경험하는 사시에 주목한다. 작가 피크리안 남평동의 '무효 환상'은 현실주의와 초현실주의 사이의 긴장관계 등을 들여다본다. ACC 복합전시 5전, 매주 월요일 휴관.



'싱가포르관광관광정보서비스 허브 공식 홈페이지'

■ 아제르바이잔 '한-아제르바이잔특별전시 '아제르바이잔의 문화유산' (ACC) 지난 2008년 설립된 국제기구 한-아제르바이잔센터는 그동안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10개국 정부의 협력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한-아제르바이잔대화개수립 35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파빌리온은 '아제르바이잔'과 '식물'을 모티브로 아제르바이잔 10개국 생태계를 느낄 수 있는 전시다. '생물다양성'과 '공공'을 모두로 식물의 생태와 인간의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기획했다. 명치와 브라스과 자연사 등 생태계는 인간을 기호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탄력적인 생태계를 위한 역할을 한다. ACC 복합전시 5전, 월요일 휴관.



줄리안 아브라함 '뜨거운 마음'을 위한 사형노래'

■ 인도네시아 '부서진 마음은 노래해' (ACC) 사피아마타가 큐레이팅한 인도네시아 파빌리온은 상상한 마음들을 불러 모은다. 작곡가 죽음적으로 연주하거나, 자리에 앉아 공간을 채운다. 어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공간으로 상징된다. 이 프로젝트는 줄리안 아브라함 '뜨거운 마음'을 위한 사형노래'를 주제로 한다. 부서진 마음을 공유하면 어떤 진동이 일어날까? '부서진 마음상태'는 미래지향적 축제의 제스처라는 의미에도 기록과 문헌성을 동반하는 방식이다. ACC 복합전시 6전, 매주 월요일 휴관.



아벨 프랭크 '소문에 의하면'

■ CDA 홀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미로센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은 초기성을 자극한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를 형성하는 외부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내적이고 개별적이라고 인식되는 자아의 조직 및 구성성과 대비한다. 이 질문은 또한 개인 및 집단으로서의 '우리'가 형성되는 과정의 다양성을 함의한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만들어지지만 역사, 민담, 찬가, 신화 등에서 영향을 받는다. 전시에 포함된 작품들은 이와 같은 인식의 맥락에 닿아 있다. 매커니즘과 자아의 구성 방식이 작동하는 문화적 순간들에 대한 사유를 드러낸다. 미로센터 공용실, 추석연휴 휴관.



'싱가포르관광관광정보서비스 허브 공식 홈페이지'

■ 아제르바이잔 '한-아제르바이잔특별전시 '아제르바이잔의 문화유산' (ACC) 지난 2008년 설립된 국제기구 한-아제르바이잔센터는 그동안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10개국 정부의 협력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한-아제르바이잔대화개수립 35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파빌리온은 '아제르바이잔'과 '식물'을 모티브로 아제르바이잔 10개국 생태계를 느낄 수 있는 전시다. '생물다양성'과 '공공'을 모두로 식물의 생태와 인간의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기획했다. 명치와 브라스과 자연사 등 생태계는 인간을 기호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탄력적인 생태계를 위한 역할을 한다. ACC 복합전시 5전, 월요일 휴관.



'싱가포르관광관광정보서비스 허브 공식 홈페이지'

■ 아제르바이잔 '한-아제르바이잔특별전시 '아제르바이잔의 문화유산' (ACC) 지난 2008년 설립된 국제기구 한-아제르바이잔센터는 그동안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10개국 정부의 협력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한-아제르바이잔대화개수립 35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파빌리온은 '아제르바이잔'과 '식물'을 모티브로 아제르바이잔 10개국 생태계를 느낄 수 있는 전시다. '생물다양성'과 '공공'을 모두로 식물의 생태와 인간의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기획했다. 명치와 브라스과 자연사 등 생태계는 인간을 기호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탄력적인 생태계를 위한 역할을 한다. ACC 복합전시 5전, 월요일 휴관.



줄리안 아브라함 '뜨거운 마음'을 위한 사형노래'

■ 인도네시아 '부서진 마음은 노래해' (ACC) 사피아마타가 큐레이팅한 인도네시아 파빌리온은 상상한 마음들을 불러 모은다. 작곡가 죽음적으로 연주하거나, 자리에 앉아 공간을 채운다. 어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공간으로 상징된다. 이 프로젝트는 줄리안 아브라함 '뜨거운 마음'을 위한 사형노래'를 주제로 한다. 부서진 마음을 공유하면 어떤 진동이 일어날까? '부서진 마음상태'는 미래지향적 축제의 제스처라는 의미에도 기록과 문헌성을 동반하는 방식이다. ACC 복합전시 6전, 매주 월요일 휴관.



아벨 프랭크 '소문에 의하면'

■ CDA 홀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미로센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은 초기성을 자극한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를 형성하는 외부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내적이고 개별적이라고 인식되는 자아의 조직 및 구성성과 대비한다. 이 질문은 또한 개인 및 집단으로서의 '우리'가 형성되는 과정의 다양성을 함의한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만들어지지만 역사, 민담, 찬가, 신화 등에서 영향을 받는다. 전시에 포함된 작품들은 이와 같은 인식의 맥락에 닿아 있다. 매커니즘과 자아의 구성 방식이 작동하는 문화적 순간들에 대한 사유를 드러낸다. 미로센터 공용실, 추석연휴 휴관.



이끼바위루로 '해초 이야기'

■ 한국국제교류재단-(재)광주비엔날레 '거리의사(書)' 한국국제교류재단-(재)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은 '거리의사(書)'를 통해 동아시아, 특히 아제르바이잔을 주제로 작업해 온 한국 작가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공동의 주제로 묶어낸다. 작가들은 미시적 경험과 관찰로부터 출발, 다양한 발전 현상을 예술로 발전한다. 영상을 비롯해 설치, 사진, 회화, 판화 등 매체와 기법을 복합적으로 시도해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사회문화적 정점을 조망한다. '작품들은 각각의 사회, 정치, 역사와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한 관심과 별도로 개별적 주제의식을 견지한다. ACC 복합전시 6전, 매주 월요일 휴관.



이끼바위루로 '해초 이야기'

■ 한국국제교류재단-(재)광주비엔날레 '거리의사(書)' 한국국제교류재단-(재)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은 '거리의사(書)'를 통해 동아시아, 특히 아제르바이잔을 주제로 작업해 온 한국 작가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공동의 주제로 묶어낸다. 작가들은 미시적 경험과 관찰로부터 출발, 다양한 발전 현상을 예술로 발전한다. 영상을 비롯해 설치, 사진, 회화, 판화 등 매체와 기법을 복합적으로 시도해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사회문화적 정점을 조망한다. '작품들은 각각의 사회, 정치, 역사와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한 관심과 별도로 개별적 주제의식을 견지한다. ACC 복합전시 6전, 매주 월요일 휴관.



익명, 제목 없음(디지털 플라자)

■ 유니온 '중요한 질문' (은암미술관) '중요한 질문'은 관객과 예술품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학을 활용한 그룹 전시다. 알반 카르스텐, 칭 해, 김나을, 폴 길렌 등 여러 작가들의 일시적 협력 설치 작업들이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과 관객이 '알기를 거부하는' 저항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대사회에서 주로 '열망'에 의해 주도되는 예술 창작과 감상이, 인간의 진정한 창의성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방법을 모색한다. 은암미술관, 매주 월요일, 공휴일, 추석 당일 휴관.



하본 미르자와 열기 도로에타는 '고대인들은 그것을 평정성(이타시)아이라 부른다'

■ 한국국제교류재단-영국문화원 '우리가 만든 유령' (하정음미술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한 '한-영 기후정상위원회 기금 작품'에서 가져온 전시물을 주로 공개한다. 한국과 영국, 그 나라의 생태계를 아우르는 이번 파빌리온은 생태학과 철학의 시적, 철학 명제 등을 통해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만든 유령'에서는 지도화된 군사적, 태연의 소리 등의 풍경이 펼쳐진다. 이는 인류세적 고안물 부각시키는 것이다. 하정음미술관 4, 5전, 매주 월요일 및 추석 당일 휴관.



임달리훈만 알 무프타 '물속에 내리는 비'

■ 카타르 '독특, 비, 폭풍' (광주은행 아트홀) 카타르에는 태어났거나 카타르를 기반으로 활동중인 7명 예술가들의 작품이다. 4개의 컴퓨터 이루어진 전시는 가뭄이 일 때 비를 간주하는 지도 '실맛 알-이스타스카'와 카타르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슬람교에서 대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아미르'로 존재하며, 비는 축복이다. 비를 기원하기 위해 사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비의 축복과 그것이 지구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광주은행 아트홀, 매주 월요일 휴관.



레이프 홀름스트란드 '해발에 알주머니'

■ 스웨덴 '발리할 수 있는 거리' (충장22) 현대사회는 서구의 우물쭈문으로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슬기롭게 작품이다. 4개의 컴퓨터 이루어진 전시는 가뭄이 일 때 비를 간주하는 지도 '실맛 알-이스타스카'와 카타르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슬람교에서 대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아미르'로 존재하며, 비는 축복이다. 비를 기원하기 위해 사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비의 축복과 그것이 지구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광주은행 아트홀, 매주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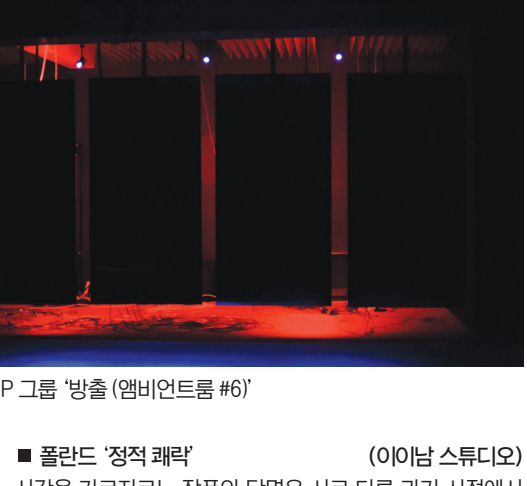
티 타게도트 '지문을 찾아서'

■ 아메리카 '움동적 피동' (5-18기남문화재단) '움동적 피동' 파빌리온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현대사 전시한다. 자연을 수동적인 존재로 여긴다. 스웨덴이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는 환경에 대한 책임과 자본주의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한다. 사실 자연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스웨덴의 법 '알레안스레'은 자원 채취, 문화적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발리할 수 있는 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류와 자연의 교차점과 근접성을 탐구한다. 8명의 스웨덴 기반 예술가들은 사회적 통찰, 문화적 비평, 미래 비전을 이야기한다. 충장22, 매주 월요일 휴관.



헤르타 키스카 '히드라'

■ 핀란드 '돌봄 행위' (하정음미술관) 나랍 노르 이크람, 헤르타 키스카, 미치 팀, 샴소 비르 미술(연예)비엔날레 주주들에게 선보이는 아시아 미술 색연필이다. 현대에 아시아 미술을 작업하는 의미, 미국 내에 아시아 미술이 갖는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미술관'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초창적인 '외향'을 상상한다. '드림스케이프' 내부의 역동성은 작품의 온전한 화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양한 유사성과 역동성, 공동체에 노출하는 긴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한다. 소비사회와 기후 문제, 사물과 기억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맥락화한다. 광주은행 아트홀, 매주 월요일 휴관.



IP 그룹 '방울 (엔비트룸 #6)'

■ 폴란드 '정적 책방' (이안남 스튜디오) '정적 책방'은 폴란드의 단편은 서로 다른 과거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재적' 주제에 관객에게 제시한다. 알리자 클리코, 미치에이 마르코프스키를 비롯해 IP 그룹에서 활동하는 아르프 리우 등 9명의 예술가들이 수심 내 걸쳐 글로벌 미디어아트와 책을 함께 전시한다.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공동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미한 언어로 확대한다. WRO 아트센터의 책방과 마에이 마르코프스키의 '소리가 없는 소리 조각', 비현실적 결과물이 위한 현상을 받아들이고 불어낸 작업물을 만든다. 이안남 스튜디오, 전시수관일 일일.



리울 리브 '리에중'

■ 오스트리아 '클립 리에중' (이강희미술관) '작가 리울 리브는 카바레 무대와 독일연극, 인디그라운드 클럽 등에서 영향을 받은 설치 작품(점 피포먼스 공간) '클립 리에중'을 펼쳐 보인다. 관객은 작품 내부의 커뮤니티로 초대받으며 리우 등 9명의 예술가들이 수심 내 걸쳐 글로벌 미디어아트와 책을 함께 전시한다.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공동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미한 언어로 확대한다. WRO 아트센터의 책방과 마에이 마르코프스키의 '소리가 없는 소리 조각', 비현실적 결과물이 위한 현상을 받아들이고 불어낸 작업물을 만든다. 이안남 스튜디오, 전시수관일 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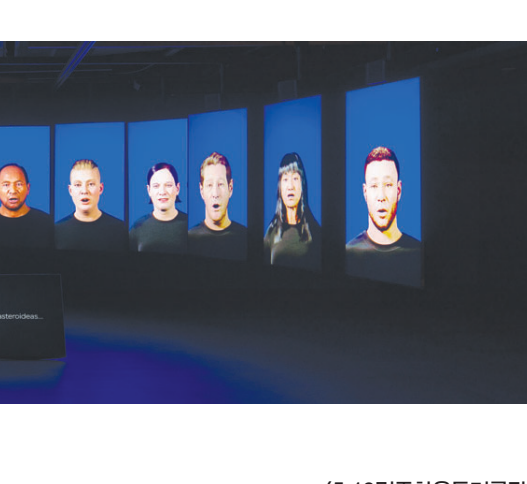
주세용, 이선, 김성아 '간조로 돌아온 현저 해안'

■ 캐나다 '고향과 또 다른 장소들' (양림동 평면마을)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캐나다 극지에서 선전하는 여섯 아티스트 작가들이 쌓아온 관계를 기록한다. 캐나다 북극은 생존에 쉽지 않은 환경이며 고립된 공간이다. 한국에서 아티스트 미술을 선보인 작가들은 큐레이터, 지역 작가들과 자신들이 버려진 장소에서 사유, 사회적 관심사를 비교한다. 공간 전체를 감싼듯한 대형 벽화는 캐나다 극지에서부터 창조적 실험에 대해 미학적 주제를 투영하는 한편 시각적 경관으로 작용한다. 양림동 평면마을,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플로렌시아 레바 '이 형태들을 위해 수업을 위한 선'

■ 이란티나 '들의 순서대로' (5-18민주화운동기념관) '작가의 최신작'이 행진들을 위해 수업을 위한 선'은 13채널 비디오 설치물로, 그대 그리고 비극의 함성처럼 떠올리게 한다. 전시는 기존 학습체를 전복하고 자체를 전복시키는 것을 조망한다. 인간과 비인간, 현실과 디지털, '진보'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모호화한다. 그러나 학위적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 상호작용 및 성향의 새롭고 복잡한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된다. 레바는 지질학적 시간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폭풍 같은 바다의 현실, 인간과 비인간을 상기하게 하는 세계의 모습을 그린다. 5-18민주화운동기념관,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 휴관.



유네스코 바바 알리 '모로코의 국가'

■ 이라크 '드림 스케이프' (광주예술의전당 별관) 페디니온을 강화하고 있는 흑인 교수 은조키 웨인은 이번 작품에서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위해 유사성, 차이 개념을 탐구한다. 그는 디지털 행동주의, 음악을 통해 인간과 공간, 주체들의 '외향'을 상상한다. '드림스케이프' 내부의 역동성은 작품의 온전한 화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양한 유사성과 역동성, 공동체에 노출하는 긴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한다. 소비사회와 기후 문제, 사물과 기억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맥락화한다. 광주은행 아트홀, 매주 월요일 및 추석 당일 휴관.



유네스코 바바 알리 '모로코의 국가'

■ 이라크 '드림 스케이프' (광주예술의전당 별관) 페디니온을 강화하고 있는 흑인 교수 은조키 웨인은 이번 작품에서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위해 유사성, 차이 개념을 탐구한다. 그는 디지털 행동주의, 음악을 통해 인간과 공간, 주체들의 '외향'을 상상한다. '드림스케이프' 내부의 역동성은 작품의 온전한 화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양한 유사성과 역동성, 공동체에 노출하는 긴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한다. 소비사회와 기후 문제, 사물과 기억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맥락화한다. 광주은행 아트홀, 매주 월요일 및 추석 당일 휴관.



바이빙 '달밤'

■ 중국 '흰사투스 繪事後素' (금봉미술관) 공자는 '그림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에 그리는 법(繪事後素)'이라 언급했다. 공자가 제시했던 아름다움의 외상과 그 외향에 대한 담론을 화폭에 담았다. 중국 회화사 '흰사투스'는 현대미술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 나 세 시선을 모색한다. 개관된 중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 이슈들을 초경적으로 형태를 생략하거나 단순화, 또는 변형해 표현한다. 아카데미즘 기법에 관한 '흰사투스'의 충실한 재현은 작가들의 관습사수에 두고 새로운 표현을 추구한다. 금봉미술관, 매주 월요일 및 추석 당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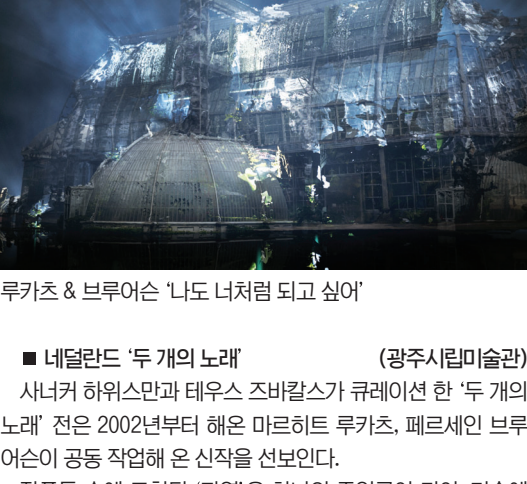
넬레 카 '무제'

■ 독일 '무제 미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펼쳐지는 파빌리온은 기존의 전시 형식을 초월한 공간을 소개한다. 문화적 교류를 상징하는 국제적 그룹 문예제는 예술을 베풀어가는 경계로부터 해방시켜, 창조를 위한 활기찬 포럼으로 변화시킨다. 돌로미티 지방에 위치한 문예제 프로젝트는 이를 위한 일련의 통행을 통해 세계 곳곳에 모여든 예술가들에게 자신 그대로 접촉할 기회를 선사한다. 이들 프로그램 '연대 레지던스'는 문화적 대화와 상호보완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량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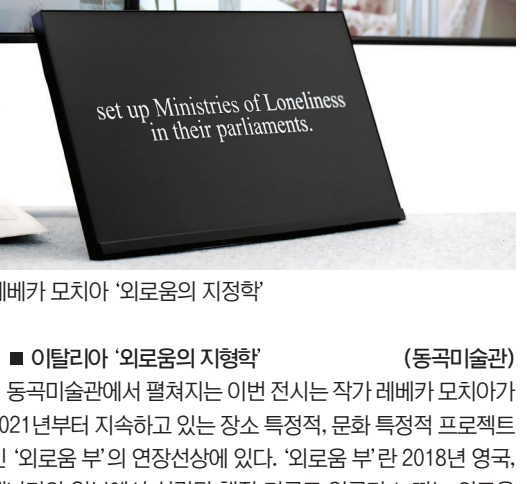
이강하 '무용사의 봄'

■ 광주 '무용: 교묘한 긴장' (광주서림미술관) '무용'이라는 의미가 지난 광주의 지역성과 과거 시민들을 대변하는 파빌리온이다. 광주가 겪었던 5월의 아픔을 보듬고, 이를 현재적 의미로 계승하기 위해 방법을 탐구한다. '무용'으로 표상되는 광주의 의미를 하나의 도시나 과거 사건에 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공동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미한 언어로 확대한다. 5월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도 무용의 통시적-공시적 가치가 충분히 살피며 기억을 두고 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3, 4, 6전, 매주 월요일 및 추석 당일 휴관.



루카즈 & 브루노스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 네덜란드 '두 개의 노래' (광주서림미술관)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는 루카즈 & 브루노스 큐레이터인 한 '두 개의 노래' 전은 2002년부터 해온 미르티노 루카즈, 페르세인 브루노스 큐레이터가 큐레이팅한 전시물이다. 작품은 속어 표현된 '자연'은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 기술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회의 권력 구조와 위계를 표상한다. 배후의 형상이거나 다 부서져 가는 글자 위에 떠어 나는 자연의 모습은, 인류의 희망성을 표상하는 하나의 장치로 가능하다. 광주서림미술관,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 휴관.



레베카 모치아 '외로움의 지정학'

■ 이탈리아 '외로움의 지정학' (동국미술관) 동국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작가 레베카 모치아가 2021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장소 특장적, 문화 특장적 프로젝트인 '외로움' 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외로움' 부란 2018년 영국, 캐나다와 일본에서 설립된 행정 기구로 설립된 '나가는 외로움'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 이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장소성이 큐레이팅을 맡았으며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이 동참하는 모습은, 인류의 희망성을 표상하는 하나의 장치로 가능하다. 동국미술관, 매주 월요일 및 추석 당일 휴관.



엘리아 메사이어 '신락'

■ 덴마크 '쇼케이스' (씨움) 덴마크에서 청년 작가 에스벤 바일레 케레, 엘리아 메사이어, 필립 베스트 등을 공동적으로 '피포먼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예술계에 접목해 왔다. 작가들은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을 통해 21세기 중요한 화두인 정체성, 여성, 성소수자, 보살핌, 고통, 자본주의 등의 주제를 다룬다. 출품작들은 모두 아트 허브 코펜하겐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조각들이다. 작품은 더 큰 주제인 공연예술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떠올리도록 유도한다. 남구 씨움, 매주 월요일 휴관.



엘리아 메사이어 '신락'

■ 덴마크 '쇼케이스' (씨움) 덴마크에서 청년 작가 에스벤 바일레 케레, 엘리아 메사이어, 필립 베스트 등을 공동적으로 '피포먼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예술계에 접목해 왔다. 작가들은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을 통해 21세기 중요한 화두인 정체성, 여성, 성소수자, 보살핌, 고통, 자본주의 등의 주제를 다룬다. 출품작들은 모두 아트 허브 코펜하겐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조각들이다. 작품은 더 큰 주제인 공연예술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떠올리도록 유도한다. 남구 씨움, 매주 월요일 휴관.